

성인지 예산법 도입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제언

정미현 (스위스 미션 21, 여성과 젠더 데스크 의장)

I. 머리말

II. 몸 말

1.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이란?
2. 성인지 예산과 성서적 근거
3. 한국 교회의 현 실태

III. 꼬리말

• ABSTRACT •

Gender Budgeting, a practice internationally introduced in the 1980's, was implemented several years ago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ince 2009 it has been recognized in official reports to parliament.

Gender budgeting consists of two parts: a gender-based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situation; and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sensitivity throughout all levels of the budgetary process by restructuring revenues and expenditures.

As we move towards implementing greater gender justice and equality through financial processes, both the Korean Church and Korean theology have an opportunity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ractice from an ethical Christian point of view. While the practice has been adopted from the secular woman's movement world wide, its implications are not limited to secular institutions. I review the concept and methods of implementation, as well as their theological implications. Further, I reflect on how we might read the Bible through fresh eyes regarding these themes.

Gender budgeting has the potential to help define and correct injustices affecting both women and men within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church, church based organizations and theological institutions. There are four critical aspects to the program: transparency, efficiency, responsibility and justice.

Resistance to economic injustice was central to the spirit of the founding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16th century - the origin and antecedent of the majority of today's Korean Protestant churches - and an important aspect of the Reformation. God seeks to renew the whole of creation and desires abundant life for all. God's plan for the socially marginalized and weak is the ground for economic justice. In this way, God's revelation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calls us to reveal the economic injustice within our Churches, para Churches and theological institutions. Gender budgeting is a responsible tool and suitable practice which will help us achieve Christian justice.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is dynamic process not only as a timely financial practice, but to further Christian living and understanding within our communities.

Keywords : gender (sensitive) budgeting, economic justice, transparency, value system, responsibility

I. 머리말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늑대를 잡으러 몰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늑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항도 하려들지 않습니다… 이들을 잡아 흔들면 금화와 은화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틀어 짜면 당신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친구들의 피가 새나올 것입니다.”¹⁾ 이 내용은 불링거에 의해 전해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홀드리히 츠빙글리의 설교의 일부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적 표현이 나온 배경은 당시 용병제도의 문제를 둘러싼 교회의 이권개입과 부패함 때문이었다. 스위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이 무렵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무척 피폐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의 왕이나, 로마 교황의 군대에 편입되어 용병으로 나가 소득을 얻고자 하였다. 츠빙글리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 군목의 자격으로 전쟁터에 참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서로 다른 나라의 군대에 속한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실상을 보게 된 후 교회의 부정부패함을 고발하고 개혁을 일으킬 결심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처참한 실상 뒤에는 용병을 주선하던 교회가 이익집단으로 존재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채 본질을 왜곡하고, 부패한 상황이 종교개혁의 배경이다. 즉 교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않고, 또한 지출이 모두를 위하여 공의롭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운영하도록, 교회 재정에 성인지 예산법 도입을 위한 기독교 윤리학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흔히

1) 마르틴 하아스, 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서울: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104.

한국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내는데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이지만²⁾, 헌금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되는 가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은혜롭게 사용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법은 교회 재정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촉구하는 한 방법이다.

현실은 이론만큼 만만하거나 호락호락 하지 않지만, 이론은 그러한 현실을 분명히 통찰할 수 있도록 개념적으로, 방법적으로 정리된 틀을 제공한다. 이론은 어떤 제한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없이 전개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공허 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가를 우선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그것을 어떻게 신학 윤리적으로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끝없이 상상의 날개 짓을 하고 비상할 수 있는 단순한 이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론 제시가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몸 말

1.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이란?

성인지 예산이란 재정적 측면에서 여남 평등과 정의의 구현하기 위한 예산 책정의 한 방법이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 예산 운영 면에서 젠더의 문제를 가시화함으로써,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과 결산의 각 항목을 젠더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일이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

2) 신, 구약 성서에서 헌금에 관련된 성서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창 14, 20b; 창 28, 20-22; 민 18, 21-32; 신 14, 22; 신 14, 28-29; 말 3:7-12; 마 23, 23; 눅 11, 42; 막 12, 44; 딤후 6, 17; 히 13, 15-6; 약 1, 27; 고후 9,5f 등.

분을 분명히 가시화 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예산 과정으로의 성인지 관점의 통합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통합” 두 단계로 구성된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 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사업, 성 평등 영향 분석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³⁾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예산의 분배구조에 영향을 끼쳐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목표이다.⁴⁾ 성인지 예산과 통합의 목표는 자원분배의 공정성, 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운영 책임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젠더와 성인지 그리고 경제윤리를 연결하는 시도는 점진적으로 다각도로 발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신학 논의에서나, 교회를 포함한 유사 관련 단체에서는 아직 포괄적으로 확산, 정착되지 못하였다.⁵⁾ 시대적으로 간략히 구분해 보면⁶⁾, 197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지도력 향상과 발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소외계층의 강화(empowerment)와 힘의 재분배를 통한 권력 재배치의 문제가 중요하였다. 1980년대 말경부터는 경제발전 논의에서 젠더 문제가 등장하고 젠더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문제를 인권문제로써 접근하는 시도가 행하여 졌는데 유엔의

3) <http://gb.kwdi.re.kr/sub.jsp?le=left02.jsp&main=/gender/sub01.jsp> 2011년 4월 1일 방문.

4) 성인지 예산 센터, 『성인지 예산, 이제 시작이다』(서울: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0).

5) 정미현, 「칼빈의 경제 윤리와 젠더」, 『기독교 사회윤리』 제19집, 2010, 196ff.

6) Vgl. Christa Wichterich, *Gender als politisches Projekt. Wie bitte geht's zur Geschlechtergerechtigkeit?*, in: Perspektive Feb. 2010, 2.

인권 문제 접근방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젠더 담론의 확산과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언급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성의 새로운 전환과 연구가 시도,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는 성담론에 대한 다양성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던 종래의 이원적 구조를 확산하는 개념들이 소개되며 성 담론의 고정성을 탈피하도록 돕는다.

결론적으로 젠더에 대한 담론은 고정되거나, 단순히 성평등의 일차원적 측면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점진적으로 확산된 성, 성적 성향성, 계급, 인종, 국적, 종교, 신체적 조건이나 결합 등의 포괄적 측면(a multi-faceted Concept)을 다루는 교차적 복합성(Intersectionality)⁷⁾ 을 염두에 두고, 한 사회나 집단구조, 체제 안에서의 힘과 권력에 대한 복합적 문제성을 다루는 열린 상태로 이해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성이⁸⁾ 극명하게 드러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한 상황과 불평등의 구조로 몰고 가는 카우보이식 자본주의 (“cowboy” capitalism)⁹⁾ 를 종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서 포괄적 의미에서 젠더 정의의 문제를 민감하게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돌봄의 경제(Care economy)”¹⁰⁾를 이룰 수 있는 의식 전환이 요청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빈부 격차를 제도적으로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를 투명성 있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7) <http://www.cgc.uni-frankfurt.de/intersectionality/index.shtml>, 2009년 9월 9일 방문.

8) 정미현, 「칼빈의 경제 윤리와 젠더」, 『기독교 사회윤리』 제19집, 2010, 198.

9) Cf. Stephanie Seguino, *We Care! Feminist responses to the Care Crises*, The WIDE Annual Conference 2009, University of Basel, 18-20. (June, 2009).

10) 협의의 차원에서 이것은 어린이의 양육과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간병인 체제와 임금, 노동 조건 등을 분석하고 불공정을 시정하는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며,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 없이 대부분 이러한 일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차원에서 이것은 생산과 재생산, 생명을 화두로 하는 경제 정의,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문제 전반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한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성인지적 예산법¹¹⁾을 실행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경제(demokratische Ökonomie), 여성주의적 경제(feministische Ökonomie)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수입과 지출의 자본의 흐름을 성 정의, 여남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고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성인지 예산법은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1980년대에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을 통한 구조조정문제가 논의된 후 호주에서 도입되었다.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 공적 예산과 사적 예산의 상호 연관성이 여성 경제논의를 위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되면 항상 여성들이 구조 조정의 일차 희생자가 되고, 여성들이 더욱 고용 불안정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경제 정의문제를 비판적으로 숙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5년 유엔의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 후기 베이징 여성대회의 영향으로 성인지 예산법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되고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의 예산과 지출에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예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 즉 교회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그만큼 어렵고 경제 정의에 대한 논의가 교회와 신학계에 아직도 너무 빈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었고 그 발전 과정은 가히 괄목할 만하다. 1998년 여성단체들에 의하여 성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활동이 가시화 되었고, 이에 힘입어 2002년에 국회 여성 위원회에 의하여 국회 내에서 처음으로 의제화 되었다. 2006년 국가 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2010년 회계 연도부터는 법률에

11)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ing이라고도 불린다. 유럽의 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Vgl. *Gender Budgeting, Handbuch zur Umsetzung geschlechtergerechter Budgetgestaltung*, hrsg. von Nadja Bergmann (u.a.), (Wien: Attac), 2004.

근거한 성인지 예산, 결산 제출이 의무화되어, 국회에 처음 제출되기도 하였다.

성주류화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이롭게 하지는 정책이 아니라, 한 단체나 기구의 예산 정책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의롭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이란 성별 차이에 의하여 구별이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실된 축복(Lost Blessing)”의 가치를 되찾는 “거룩한 낭비(Heilige Verschwendung)”의 첫 걸음이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나 공적 영역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과 비정부 단체, 종교 단체 등등에서 골고루 실행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교회 예산 집행과 국내외의 봉사과 구제 사업에 특별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이윤추구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예언적 전통을 지닌 성서의 메시지가 적용되어야 함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하에서는 성서의 몇 가지 내용을 성인지 예산과 경제 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인지 예산과 성서적 근거

성서는 숫자, 계산 혹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 상념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예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성서의 경제 윤리의 토대는 철저히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인종간, 계급간, 성별간의 차별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 28) 성인지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여성과 남성이 의무와 권리, 노동과 휴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 6, 2) 남녀 간의 고용의 공정성과 임금의 공정한 분배는 성인지 예산법을 성취하기 위한 한 기초적 방편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꾼이 자기 샅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눅 10, 7)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정에서 먼저 생각해 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돈을 효과적으로 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효율성)? 누가 수입과 지출에 기준을 정하는 것인가(책임성)? 지출을 가능케 하는 수입은 어떻게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투명성)? 이러한 지출을 통하여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인가(공정성)? 이러한 맥락 속에서 첫째로 요한복음 12, 1-8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¹²⁾ 마리아가 향유를 사서 예수에게 드리는 대목이다. 제자들의 눈에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어리석게 보였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녀가 돈을 낭비하고,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고 비난한다. 이 지출의 용도가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어야 한다고 말이다.(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출 내역의 우선성을 강조하신다.(8절)

마리아는 예수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 지출의 과정에서 숫자나 경제적 관점에서 철저히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한 파운드의 향유는 당시에 한 노동자의 일 년치 월급에 맞먹는다. 유다가 이러한 가격을 화폐적인 측면에서만 따지고 있던 반면에, 마리아는 다른 가치를 부각시킨다. 마리아는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그녀로 하여금 “거룩한 낭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행위를 통하여 마리아는 예수의 수난과 성금요일의 사건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사적 삶의 공간에서는 우리의 선호도에 따라 지출이 결정될 수 있겠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윤리적 규범과 합리적 예산책정이 더욱

12) Meehyun Chung, Zahlenspielerien: Von Kosten und vom Nutzen, in: *Zeitschrift für Mission*, Jg. 1, 2007, 5-9.

요청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은 공정한 잣대로 여겨질 수 있겠다.¹³⁾

둘째로 눈여겨 볼 다른 한 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이다.(막 6:30-44) 제자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 먹일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나눔을 통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겠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먹이라고 할 때 제자들은 화폐적 가치와 물리적 숫자로만 따지고 답변하였다. 200 테나리온이 있어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부유하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⁴⁾ 즉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제대로 갖고 있을 리도 만무하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이미 잠재된 물질과 수입에 대안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네 복음서의 보고에 의하면, 여기에서 음식을 먹게 된 사람의 숫자가 성인 남자로서만 약 5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마태 14, 21). 여성과 아이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실제 혜택 받은 사람들을 성별로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두 개의 떡과 물고기 다섯 마리를 준비했던가는 당시의 유대 문화적 관습에 따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처럼 음식 담당의 주체는 여성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을 예수께로 가져갔던 사람은 한 아이였다고 할지라도 말이다.(요 6, 9f.)

13) Annemarie Sancar, Gender Respons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Widerspruch*, 30. Jg. 2010, 109-122.

14) W. 슈테게만·E. 슈테게만,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손성현·김관임 역, (서울: 동연, 2008).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의 분배 방법은 두 가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첫째로 무리를 50-100명 정도로 구분해서 나누어 앉게 하였다는 것이다(das Symposion, 막 6, 39f). 익명의 무리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밥상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제서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익명성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비록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나누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부여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된 것이다.

둘째로 단순한 화폐적 가치만을 여기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였다.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이 점이 중요하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과 자발적 노력과 의지는 꼭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지 못할 지라도 그 잠재적 가치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유추해서 해석하면 시간, 의지, 경험 등 화폐로 즉시 환원될 수 없는 요소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한 다른 가치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이로써 적은 물질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눈여겨 볼 다른 성서 본문은 이사야 55장이다. 여기서는 흥미로운 시장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55장 본문에서(사 55, 1-3) 하나님은 시장에서 외치는 한 소리로 등장한다.¹⁵⁾ 포도주와 젖과 빵을 사되 값 없이 사라고 말이다. 생필품을 공짜로 가져가란다. 사고파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이사야서 본문

15) 이 본문에 대한 주석 중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는 다음을 참조: Brueggeman Walter, A Poem of Summons (Is. 55:1-3) in: Albertz, Rainer, (hrsg. u.a.), *Schöpfung und Befreiung*. Festschrift für Claus Westermann, (Stuttgart : Calwer 1989), 126-136. _____, a Narrative of Resistance (Daniel 1), in: Brueggeman, Walter, *A Social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Prophetic Approaches to Israel's Communal Lif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4), 134-146.

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거래 방법에 대칭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 외치는 한 목소리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상거래 방식을 소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방법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생필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대안적 상거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비효율적인 소비가 아니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소비와 지출을 촉구한다.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지출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데, 헛수고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비효율적 지출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몸과 마음, 생명을 위한 언약에 새로이 초대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 희망의 메시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신음하는 오늘의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적 경세가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시장 경제 체제원칙의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인 것이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시장과 지출의 법칙의 변화가 중요하다.¹⁶⁾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위한 해방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총의 소식에 초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은총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데,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세를 믿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의 불의한 폭력성이나 무분별한 지출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야만 한다.

개신교 신앙 전통에서 강조되는 오직 은혜로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다. 우리의 능력이나, 상태, 공로, 업적이 이러한

16) Kuno Füssel, Rettung für die Verdammten dieser Erde: Jesaja 55, 1-3b (3c-5), in: *Junge Kirche* 56, 1995, 303.

은총의 선물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의 업적과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이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꼭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미리 이러한 것을 받도록 예정되었거나,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꼭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감사하다는 것은 순수히 선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값 없이 주어진 선물은 그것을 주는 이의 선함에만 오로지 근거하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긴 하지만, 값싼 것, 싸구려가 아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 감사함으로부터 우리는 공동의 선과 의를 살피도록 요청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하는 인간과 피조물로 눈을 돌리게 한다. 나 중심의 삶의 방식과 시각으로부터 우리 중심으로, 또한 경제 체계에 있어서도 관계성 속의 경제 체계에 대하여 관심하게 만든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은 관계성 속에서의 새로운 경제 윤리를 모색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의 언약을 맺는다.(사 55.3) 생명을 향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 돈 대략 5000원에 해당되는 스위스 주화 그 가장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뜻으로 ‘도미누스 프로비데비트(Dominus providebit)’ 이란 글귀가 적혀 있다. 창 22,8에 근거한 이 글귀는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신뢰할 대상이란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주화에 새겨진 문구는 1888년 스위스 신조 (Das Helvetische Bekenntnis von 1888)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삭

17)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1, (Zürich: TVZ), 1987, 222.

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 알기도, 깨닫기도 전에 미리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닌 쓸데없는 불안 심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더 갖으려 하고, 더 축적하려고 하는 욕심을 자제할 수 있고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도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 과정에서 출애굽 공동체는 생명을 가능케 하는 물(사 48, 21)을 선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 값을 치루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제가 되는 것은 “떨쳐 일어나 가는 행위”이다.

이렇게 가리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간혀 있는 굴레로부터 우선 벗어 나오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로부터 벗어나 연대감과 연민을 갖고 나 중심만의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 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웃하는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돈을 내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시장의 한 외침을 연대적 경제체제 전환을 위하여 유추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노동의 댓가를 정당히 지불해야 됨을 강조하는 공정거래 무역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지향하는 돌봄의 경제 윤리가 여기에 대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목마르고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인 연대감과 연민을 보이시며, 관계성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여성성이 이러한 방식으로 또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사 55. 1-2)

18) Vgl. Imtraud Fischer, Der Schriftausleger als Marktschreier. Jes 55,1-3a und seine innerbiblischen Bezüge, in: Kratz, Reinhard G. u. a. (Hg.), *Schriftauslegung in der Schrift*. FS Odil Hanneß Steck,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154ff.

이상에서 보여진 성서의 몇 가지 예들은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과 위협성은 늘 존재한다.¹⁹⁾ 그렇기 때문에 돈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항상 성서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맘몬이즘이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가 극대화된 과정에서의 자본과 기술 숭배의 노예가 된 상태이다. 맘몬은 강한 자가 그들의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체계의 근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거나...,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시킨다... 혹은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의 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다...”²⁰⁾

이처럼 물질적 자본이 맘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한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외에도 우상의 양상은 다양하다. 근본주의적 기독교적 측면에서 다른 종교의 신을 우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차원적 발상이다. 오히려 기독교 안에 다양한 형태의 우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말이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교만으로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정죄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계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식의 능력을 충족하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다. 그것은 정치, 종교, 경제, 사회 전반에서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자신만의 척도에서 자족하는 경건성,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

19) 정미현, 「칼빈의 경제 윤리와 젠더」, 『기독교 사회윤리』 제19집, 2010, 184.

20) Aloysius Pieris, *Feuer und Wasser. Frau, Gesellschaft, Spiritualität in Buddhismus und Christentum*, (Basel: Herder Verlag), 1994, 210.

남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인종 차별, 성차별, 사회적 계층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 곧 선과 악의 판단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곧 선의 가치만을 지니고 타자는 악의 가치만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는 방법이다. 즉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한국 개신교의 70%를 차지하는 장로교의 기초를 놓은 츠빙글리는 기독교 신앙인은 인간의 정의 실현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정의가 결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열정을 갖고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였다.²¹⁾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정의이고, 흠 없으며, 지고한 선이어서 그 분에게서 나온 것은 어떤 것도 흠이 없고, 정의로우며 선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의로우실 뿐 아니라, 신성한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순수하고 뒤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의 부패함을 잘 알고 있었던 츠빙글리는 인간들 사이의 정의에 필요한 구체적 골격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그 잣대로 삼고 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불공정한 경제 체제나 재정운영에 대하여 단순히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바로 배고픈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갖고 보살핀 분이시며, 종교성과 불의한 경제 체제의 연

21) 마르틴 하아스, 정미현 역, 『홀드리히 츠빙글리』(서울: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136-144.

22) 홀드리히 츠빙글리, 정미현 역,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말씀과 교회』 제26호, 2008, 259-329 참조.

결고리를 끊도록 성전을 정화하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마태 21,12-13)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체제는 기독교의 영향의 역사와 연관된 채로 발전되어 온 것이며, 그 안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특히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남성 중심, 백인 중심의 헤게모니와 진보된 자본주의의 독식,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그렇게 생겨진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의미부여 되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나고 합성된 모든 것은 또한 해체되어 질 수 있다.”²³⁾

3. 한국 교회의 현실태

이미 한국 교회에서 양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과 분야별 정책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바 있다.²⁴⁾ 또한 한국 교회 양성 평등의 실태와 이를 교정하고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적 과제에 대해서도 다각적 논의가 진행되었다.²⁵⁾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 내에서 제도적으로 도입될 제안 가운데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제도 도입에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모든 교육 예산에 양성 평등 교육 예산 50% 배정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시행, 교육 예산 중 여성 목회자, 여성 평신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장학금 지급 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것 등이다.²⁶⁾ 또한 무엇보다도 국내외 교회와 선교 단체의 남녀 리더십 구조와 불평등성에 대해 의식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23) Carter Heyward, *Jesus neu entwerfen. Die Macht der Liebe und der Gerechtigkeit*, (Luzern: Exodus, 2006), 94.

24)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양성평등 위원회, 『한국 교회 양성 평등 정책 문서』(서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2008), 146-154.

25) 임희숙, 「한국 교회에서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 『한국 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 실태 조사 보고서』(서울: 한국 기독교장로회 양성 평등 위원회, 2010), 182-200.

26)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양성평등 위원회, 『한국 교회 양성 평등 정책 문서』(서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152f.

예산 책정과 배정과정의 불평등성은 교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국외로 지출되는 해외선교비의 사용 용도와 방법도 또한 문제인 것이다. 이미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 단체의 불편한 진실”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러한 영역에도 크게 다를 바 없이 반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반적 남녀 임금 고용 격차는 2003-2006년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로 OECD 가입 회원 국가 중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참고로 OECD 가입 회원 국가 평균격차는 17.6%이다.²⁷⁾ 남녀의 고용 임금 격차는 성차별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공급측면에서 인적 자본 투자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다. 즉 교육, 훈련 기회 등에 여성이 일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학력, 경력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여성이 고용 기회나 승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우리나라에 1988년 도입된 이래로 성희롱, 성차별을 포함한 전반적 여성 고용 불안정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²⁸⁾

이러한 사회 현상과 맞물릴 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 성차별의 영향이 더욱 가중되어져서 교회와 신학교 내에서의 남녀의 고용 기회와 물질적 분배의 상황은 더욱 불공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에 예언자적 소리를 전해주고, 건설적 사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에 대한 전반적 의식과 개선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7) http://www.oecd.org/document/46/0,3343,en_2649_34747_40401454_1111,00.html, 2011년 4월 11일 방문.

28) <http://www.kwnews.co.kr/nview.asp?s=601&aid=211040500181>, 2011년 4월 11일 방문.

III. 꼬리말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정의는 늘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의가 완전하게 보일지라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항상 그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빛에 비추어 인간의 정의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한 방편은 이 논문에서 다룬 경제 윤리적 정의 실현 문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불평등, 불의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고소득자 남성, 저소득자 여성의 이원론적 구조와 남성의 일은 가치 있는 일, 여성의 일은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사회적 통념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눅 10, 38-42)로 이원론적인 위계질서 속에 주석이 끼친 악영향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교회 내에서도 신학의 영역에서 봉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한정된 일을 평가 절하하는 문제를 지닌다. 또한 여성만이 화폐의 가치로 환산되지 못하는 비가시적 무급 노동에 내몰리기 쉽다. 더욱이 여성 스스로가 성 불평등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남성들이 전혀 바뀌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고 변화를 위하여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제화된 제도가 있어도 암묵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배한다.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과 같은 일종의 무급노동에 대하여 그 화폐적 가치가 환산되어 가시화 될 수 있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화폐적 가치로만의 환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가치에 대한 평가와 평가체계가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

남녀 역할 분담과 업무 수행의 불평등 해소 방안은 다양하다. 육아의 역할 분담과 노동 강도의 유연성 확보는 기본이다. 또한 파트 타임제를 도입하여 유연근무제가 마련되고 여성의 장기 사역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은 지배하고 명령해야 하고,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종과 종속만

이 요청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함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이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원론적 해석을 지양해서, 같은 성별 안에서나 다른 성별 안에서 상위 리더십은 남성 리더십으로 하위 리더십은 여성 리더십으로 단순히 구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성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인종, 계급 차별, 자연에 대한 학대의 문제성과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리 자각한 남성들이 많이 확보하고, 단순한 여성 배제의 문제를 모든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비롯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성담론의 문제만이 아닌,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사이의 굴종과 종속의 문제를 포괄하며, 지배 구조와 자연, 문화도 함께 돌이켜 보는 힘과 지배의 구조성에 연관된 총체적 담론이다.

신학교 운영과 교회 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 논문을 마감하고자 한다. 의결 구조에서 남녀 할당제 도입, 남녀의 전통적 고정 역할 분담을 폐기하고, 각자가 지닌 능력과 관심에 따른 공정한 자리 분배, 노동과 휴식의 남녀의 공동 분담, 젠더에 대한 전문 인력을 통한 재교육 강화, 젠더에 대한 신학적 논의의 확대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시범사례가 실험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은 젠더의 시각에서의 상황분석이다. 양적분석의 기준은 연령, 직위, 직책, 학력, 경력, 임금, 고용현황 그리고 수혜분석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젠더연구에서 논의되는 제안이 이러한 상황분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전 연구와 분석은 양성평등 언어의 적용과 성인지적 시각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계획 수행 초기 단계에

서 일정한 목표와 기준이 설정되었으면, 조사와 분석을 위한 요소들을 확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는 그 분석에 기초하여 찾아내게 된 불평등 구조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과 해결방안이 제안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책임 있고 적극적 개입으로 이러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 개선되어야 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하여 점진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로 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 도입, 실행, 모니터링, 평가의 일련의 과정은 꾸준히 일정 주기로 반복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모든 예산의 책정, 집행, 결산의 과정이 공정하여 성인지 예산이란 부가어가 필요 없게 될 때까지 말이다.

참고문헌

- 임희숙. 『한국 교회에서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과제』. 『한국 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 기독교장로회 양성 평등 위원회. 2010.
- 정미현. 『칼빈의 경제 윤리와 젠더』. 『기독교 사회윤리』 19집. 2010.
-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양성평등 위원회. 『한국 교회 양성 평등 정책 문서』. 서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2008.
- 성인지 예산 센터. 『성인지 예산, 이제 시작이다』. 서울: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0.
- 마르틴 하이스, 정미현역. 『홀드리히 츠빙글리』.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1999.
- 홀드리히 츠빙글리, 정미현역.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말씀과 교회』 26호. 2008.
- W. 슈테게만 · E. 슈테게만. 손성현 · 김판임 역.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서울: 동연, 2008.
- Barth Karl. *Die kirchliche Dogmatik*, II/1. (Zürich: TVZ, 1987).
- Bergmann Nadja (hrsg. u.a.). *Gender Budgeting. Handbuch zur Umsetzung geschlechtergerechter Budgetgestaltung*. (Wien: Attac, 2004).
- Brueggeman Walter. A Poem of Summons (Is. 55:1-3) in: Albertz, Rainer (hrsg. u.a.), *Schöpfung und Befreiung. Festschrift für Claus Westermann*, (Stuttgart : Calwer 1989).
- _____. a Narrative of Resistance (Daniel 1), in: Brueggeman, Walter, *A Social Reading of the Old Testament. Prophetic Approaches to Israel's Communal Lif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4.
- Chung Meehyun, Zahlenspielereien: Von Kosten und vom Nutzen, in: *Zeitschrift für Mission*, Jg. 1. 2007.
- Fischer Imtraud, Der Schriftausleger als Marktschreier. Jes 55,1-3a und seine innerbiblischen Bezüge, in: Kratz, Reinhard G. (hrsg. u.a.), *Schriftauslegung in der Schrift*. Festschrift für Odil Hannes Steck, (Berlin:

Walter de Gruyter, 2000).

Füssel Kuno, Rettung für die Verdammten dieser Erde: Jesaja 55. 1-3b (3c-5),
in: *Junge Kirche* 56, 1995.

Heyward Carter, *Jesus neu entwerfen. Die Macht der Liebe und der Gerechtigkeit*,
(Luzern: Exodus, 2006).

Pieris Aloysius, *Feuer und Wasser. Frau, Gesellschaft, Spiritualität in Buddhismus und
Christentum*, (Basel: Herder Verlag, 1994).

Sancar Annemarie, Gender Responsive Development Cooperation, in:
Widerspruch, 30. Jg. 2010.

Seguino Stephanie, We Care! Feminist responses to the Care Crises, The WIDE
Annual Conference 2009, University of Basel, 18-20. June, 2009.

<http://gb.kwdi.re.kr/sub.jsp?le=left02.jsp&main=/gender/sub01.jsp>

http://www.oecd.org/document/46/0,3343,en_2649_34747_40401454_1_1_1_1,00.html

<http://www.kwnews.co.kr/nview.asp?s=601&aid=211040500181>

논문투고일 : 2011. 04. 23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확정일 : 2011. 06. 09

 • 국 문 초 록 •

성인지 예산은 1980년대 도입되었고, 세계 여성 북경대회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도 2009년이래로 국회에 정식으로 그 내용이 보고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인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상황분석과 성인지 통합 예산의 방법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 성인지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도입되었으나, 교회재정, 신학교 운영 등에 있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인지 예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성서적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예산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통합의 두 단계로 구성되며, 이것은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 평등한 자원분배의 과정이다.

한국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의 발단도 바로 경제 정의의 문제에 착안되었음을 볼 때 우리는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통하여 남녀 간의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윤리의 차원에서 언급될 뿐 아니라, 일반적 정의에 대한 신학 윤리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신다. 또한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 파당성은 경제 정의의 근본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적 영역에서 접하게 되는 불의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구조 내에 불의한 경제 구조에 저항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로 가능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로 선사 받은 지고의 정의이신 하나님의 빛에 의지하여 신앙인은 끊임없이 불공정과 불의를 시정하도록 초대받았다.

주제어 : 성인지 예산, 경제정의, 투명성, 가치 체계, 책임성
